

장르 확대와 비평의 활성화로 질적 성장 이끌어

2001년 어린이책 분야의 성과와 과제

김상욱 |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최근 출판계를 되돌아보는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의는 단연 어린이도서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기존의 주요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출판사를 등록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어린이용 도서 출판에 전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군소 출판사들 역시 청소년과 어린이를 주요 독자로 겨냥해 기획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출판계의 동향이 곧바로 어린이 출판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번역물 범람, 장르간 불균형 두드러져 무엇보다 두드러진 문제점은 번역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릇 모든 문화가 그런 것처럼 물이 흐르듯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번역물이 어린이 도서 출판의 발전을 위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그나마 자생적으로 힘겹게 진전하고 있는 창작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특히 그림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책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로서는 한 세기가 넘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소박한 수준일 따름이다. 적어도 스크린 쿼터가 한국영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출판사들은 저마다 우리 어린이도서의 스크린 쿼터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번역물의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도서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기운 나머지 장르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중적인 흥미를 자아내는 서사 장르와 독자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식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다른 장르들, 특히 시 장르의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이런 홀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을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몇 편의 주목할 만한 동시집들이 함께 묶여 나온 것은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권오삼의 《고양이가 내 뱃속에서》(사계절), 《도토리나무가 부르는 슬픈 노래》, 김은영의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아》(이상 창작과비평사) 등은 동시집의 존재를 확인케 할 뿐 아니라, 몇몇 뛰어난 시편들이 여전히 깊은 울림을 건네고 있기에 동시의 새로운 지평을 예감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이 도서 출판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어린이책의 장정과 삽화

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저학년 문고로 나온 작품들은 글과 그림이 맺고 있는 삽화 고유의 전통적인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그림의 비중이 커졌으며, 미적 질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높아졌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신생출판사인 낮은산에서 펴낸 《비나리 달이네 집》, 우리교육의 《또야 너구리가 기운 옷을 입었어요》(이상 권정생)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판형과 디자인을 갖춘 책은 재미마주의 《학급문고》 시리즈가 처음 시도한 이래, 점차 어린이 출판 시장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자칫 삽화에 지나치게 심혈을 기울이는 나머지 글의 수준과 무관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과잉포장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판타지 장르 개척해 이와 함께 새로운 장르에 해당하는 판타지 작품들이 모색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성과다. 임정자의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창작과비평사)는 저학년 독자층에 맞게 풍부한 상상으로 즐거움을 더하고 있으며, 김우경의 《수일리와 수일리》(우리교육)는 옛이야기의 모티프를 끌어와 현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래 기억될 작품이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창작의 활성화와 함께 어린이문학을 둘러싼 본격적인 비평서 출간도 주목할 만하다. 새해 벽두에 원종찬이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비평사)을 통해 한국의 근대 아동문학의 기원과 변천을 문학사적 시각으로 재구한 것을 비롯해, 이재복의 《판타지 동화 세계》(사계절), 최윤정의 《그림책》(비룡소) 등이 개별 장르에 대한 입문서를 자임하며 몸을 내밀었다.

2001년 어린이도서 출판은 지난해와 같은 뛰어난 작품이 출현하지 않은 대신 장르를 확대하면서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값진 성과들이 자본의 논리에서 자칫 길을 잃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 염려를 어리석은 기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양식 있는 출판인들의 몫일 것이다. ■

김상욱 교수는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다시 쓰는 문학에세이) 등이 있다.